

近代 啓蒙期 漢文敍事의 한 方向 漢文 敍事에서 新聞媒體의 敍事로

진재교(성균관대학교)

1. 머리말

근대 계몽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1910년 일제강점기 전까지를 이른다. 이 시기 문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추구한 경향은 계몽운동이었다. 물론 계몽 운동은 人民의 계몽을 통하여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을 지향하고, 그 이면에는 日帝 强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도 담고 있었다. 전근대 漢文學의 敍事는 근대 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일부 한문 서사는 근대 서사양식의 자양분으로 기능하거나, 더러 이전과 다른 모습을 추구하였다. 그런데 근대 계몽기의 신문매체에 보이는 다양한 서사적 글쓰기는 한문 서사와도 관련이 깊다. 무엇보다 한문학의 서사 양식은 근대 계몽기에 근대 매체인 신문과 만나면서 전통적인 ‘文’ 관념에서 벗어나기도 하거니와, 이는 근대 계몽기 신문기사의 글쓰기와도 깊은 관련을 지닌다.

우리는 이러한 근대 계몽기 서사의 다양한 실험을 전통 양식의 근대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간 근대 매체와 전근대 문학과의 관련성은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이를테면 근대어와 근대 매체, 그리고 근대 문학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에서부터, 전근대 문학과 글쓰기와 표기방식 등이 근대 매체와 만나면서 전환하고 이를 근대적 양상으로 주목한 것,¹ 그리고 근대 매체와 독자 투고의 서사들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근대로의 길을 모색한 것 등은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² 이 때 서사는 근대 매체와 만나면서 한문학의 전통과 한문 서사 양식을 알게 모르게 간여한다는 사실이다. 얼핏 보면 한문학은 ‘근대’적 양상과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근대 매체인 신문에 배치된 기사와 문체는 한문학과 한문 서사의 자양분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2. 朝鮮朝 文人들의 文 관념과 敍事

근대 계몽기 지식인들은 대부분 文·史·哲의 전통적 사유와 글쓰기 방식으로 창작한 경우가 많다. 문학 창작 역시 전통의 ‘文’내지 ‘文章’을 의식하였다. 이들은 근대적 의미의 ‘小說’과 ‘敍事’를 인식하거나, 문학에서 이들을 따로 떼어 인식하는 경우는 적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한문 서사를 두고 근대 ‘소설’과 ‘문학’ 분야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 이 논문은 출고의 「한문의 서사전통과 근대계몽기 신문의 서사」(『한국한문학연구』 제37집, 2006) p.65-101을 개고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¹ 여기에 대해서는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 근대매체와 근대언어질서의 상관성』(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1부와 2부 참조.

² 구체적 사례로 『독립신문』과 『황성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자의 서사들 중에는 전근대 서사를 활용하여 투고한 경우가 많고, 신문 역시 이러한 서사인식을 통해 신문에 배치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현대문학 연구』 제43집, 2011) p. 97~128 참조.

부산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를 전근대 문학 양식을 활용하여 ‘계몽’을 추구한 자체는, 전통적 의미의 經世的이며 사회적 효용성을 지닌다. 하여 신문매체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는 것은 전통적 의미의 경세적이며 사회적 효용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지닌다.³ 이는 전통적 문장 관념에 견주어 보면 알 수 있다.

일월·성신은 하늘의 문이고 산천·초목은 땅의 문이며, 시서·예악은 사람의 문이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氣로써 되고 땅의 문은 形으로써 되지만 사람의 문은 道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文이란 ‘도를 싣는 그릇이다[載道之器]’이다. 人文에 대해 말해보자면, 그 道를 얻게 되면 시서·예악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아서 日月星의 삼광의 운행이 순조롭게 되고, 만물이 골고루 다스려지게 된다. 문의 거룩함이 이에 이르면 지극하게 될 것이다.⁴

麗末鮮初에 朝鮮을 기획한 鄭道傳(1342~1398)이 파악한 文관념이다. 여기서 문이란 사람과 천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하늘의 文과 땅의 文이라는 개념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도전은 人文을 ‘道’에 결부시키고 있다. 그가 파악한 문은 단순한 문장의 의미를 넘어선다. 제도는 물론 문명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 언급하고 있는 ‘載道之器’나 ‘貫道之器’의 개념은 ‘文’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文에 담는 ‘도’가

³ 신문의 기사 내용이나 신문에 보이는 서사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 제도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신문을 창간한 의도와 신문의 효용성이 현실을 향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파급효과는 전에 없이 광범하였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⁴ 『三峰集』 권3, 『陶隱文集序』,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文者, 載道之器. 言人文也得其道, 詩書禮樂之教, 明於天下. 順三光之行, 理萬物之宜, 文之盛至此極矣.”

어떠한 것인지는 시대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人文의 경우, 道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한 점에서 경제와 사회적 효용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文’이란 ‘詩書禮樂’을 두루 포괄하는 넓은 의미다. 이 시각에 서면 어떠한 글쓰기든 ‘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며, ‘문’을 드러내는 양식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文’ 관념은 상상력에 바탕을 둔 서사적 글쓰기에 영향을 준다. 서사 행위를 하는 서사 주체가 자발적으로 ‘경제적 관념’과 ‘사회적 효용성’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朝鮮朝 文人の 글쓰기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선조 후기에도 그 양상은 동일하다. 창작 주체들은 이러한 ‘문’ 관념을 통해 그 글쓰기의 정당성을 부여 받으려 하였다.

구체적 사례를 든다. 조선조 후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金鑣(1766~1822)의 경우다. 그는 『寒臯觀外史』와 『倉可樓外史』와 같은 야담을 편저하고, 野史 속에서 흥미로운 인물을 찾아내어 다양한 인물을 ‘立傳’하였다. 그는 日記·筆記·漫錄에 이르기까지, ‘信史’의 특성을 지닌 것들을 ‘外史’로 범주화하고, 읽은 저작물들에 대하여 題後를 남긴 바 있다.⁵ 여기서 김려가 끌어 들인 논리가 서사다. 正史를 보완할 만한 서사를 중시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한 언급이다. 또한 김려는 ‘信史’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信史’의 함의는 사실을 기록한다는 역사 서술 방식인 ‘實錄精神’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사실 김려가 ‘信史’로 제시한 한문 서사는 ‘外史’의 범주를 넘어, 碑誌·行狀類·傳·記事·野談·筆記는 말할 것도 없고 雜記類 등의

⁵ 金鑣, 『滯庭遺藁』 所收「寒臯觀外史題後」 및 「倉可樓外史題後」. 여기에 대해서는 심경호, 「한문산문의 기록성과 국문산문과의 관련성」(『한국한문학회연구』 제22집, 1998) p.80~84 참조.

양식에서도 그 정신을 확인 할 수 있다.

盧命欽(1713~1775)의 『東稗洛誦』에 발문을 쓴 洪稷榮(1782~1842) 역시 사회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상상과 허구가 가미된 野談集에 ‘實錄’의 개념을 슬그머니 끌어들인다.

이제 이 책(『東稗洛誦』: 필자 주)에 실린 것은 남녀의 정욕, 仙釋의 기이함, 기예의 묘함, 귀신의 변화로 놀랄 만하고 즐거워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미워할 만하여, 말하면 마음을 놀라게 하고, 들으면 배를 움켜쥐게 하니, 어려서 들은 것이 열에 일곱 여덟이나 되었지만 비리한 것은 신기로 바꾸고 虛無는 典實로 바뀌어 대부분 아무 때 아무개의 일이라고 분명히 지적하며, 아무 곳 아무 땅에서의 일이라고 증험할 만하였다. 저절로 믿을 만하고 속임이 없으니, 야사의 빠뜨린 곳을 채집하고 家乘에 빠진 것을 수습해 놓았다.⁶

노명흠의 『동패낙송』은 전형적인 野談集으로, 神異한 내용이 3분의 1을 담고 있다. 神異란 바로 인간의 삶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존재나 그 작용을 말한다. 이를 의식이나 한 듯, 洪稷榮은 위에서 ‘鄙俚가 新奇로 虛無가 典實로 바뀌어 考證할 만 하며, 野史와 家乘에 보탬이 되는 기록’이라 하여 사회적 효용을 부여하고 나섰다. 사실 신이하고 상상이 가미된 작품에 ‘實錄’의 태도를 끌어들이는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는 『동패낙송』을 옹호하기 위한 수사적 발언이지만, 전통적인 ‘문’ 관념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처럼 조선조 후기에서도 한문 서사의

⁶ 『小洲集』 卷49, 「東稗洛誦跋」, “今此編中所載, 男女之慾, 仙釋之奇, 技藝之妙, 鬼物之變, 可驚可喜, 可愛可惡, 言之誠心, 聽之折腰, 兒時所聞者, 幾居什之七八, 而鄙俚化爲新奇, 虛無變以典實, 類是某時某人, 明示持的, 某處某地, 可驗考證, 自有徵信而不誣者存, 採野史之闕略, 拾家乘之遺漏.”

주체들은 소설에 가까운 야담조차 역사기록의 범주로 전환시켜 믿을 만하고[徵信], 사실에 가까워[典實], 삶의 이치를 그려내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치환한 뒤, 마치 사실과 같은 세계를 그린 正典의 서사로 편입시켜 놓았다. 심지어 ‘--傳’, ‘--錄’, ‘--記’, ‘--志’, ‘--記事’, ‘--篇’, ‘--漫錄’, ‘--野談’ 등과 같이 다양한 한문 서사 양식을 표제로 내세우면서 겉으로 ‘據事直筆’의 정신을 강조하지만, 안으로는 허구를 사실로 꾸미기 일쑤였다. 이러한 이중성은 전통적인 ‘문’의 권위와 외피를 통해 자신들의 허구적 서사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전통적 ‘文’의 관념은 19세기까지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근대계몽기 지식인들 중에는 전통적 ‘문’ 관념에서 벗어나 拔本的으로 재인식한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서사 주체들은 전통적인 문 관념 안에서 창작하였다. 이를테면 근대 계몽기 지식인들이 신문에서 보여준 글쓰기는 ‘文’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왕의 문 관념과 다른 시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⁷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지 못했다. 기실 새로운 문학을 지향한 논의도 있었으나, 전통적인 ‘經國之大業’이나 ‘不朽之盛事’의 문장 인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거나, 새로운 리터래처의 글쓰기로 완전하게 전환하지 못했다.⁸

⁷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소명, 2000) 제2장 및 류준필, 「'문명'·'문화' 관념의 형성과 '국문학'의 발생」(『민족문학사학회』 제18호, 2001) 참조.

⁸ 근대계몽기에 이미 “지금 세상은 專業時代”(崔生, 「지리학 잡기」, 『대한유학생 학보』 2호 1907.4, 45면)와 같은 인식이나, “萬有 과학 즉 온갖 학문을 統히 修習 연구 는 것이 아니라 문학은 문학가, 理學은 理學家 各々 전문가가 有”(抱字生, 「스스로 교육할지어다」, 『태극학보』 23호, 1908.7 22면)하다는 전문화의 구도로 학문과 같은 활동을 제배치해야 한다는 선명한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신문의 글쓰기는 근대 계몽기에 이러한 논의를 전적으로 관철시킨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문’ 내지 ‘문장’과의 결별은 다소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근대 계몽기 신문에 글을 많이 남긴 유원표는 『夢見諸葛亮』에서 “物與事는 국가를 배양하는 元素也 | 오 文은 事物에 隨從하여 服役하는 부속품에 불과한 자라(----)고로 서적만 盛溢하고 사물이 微少하거나 문화만 귀중하고 실업에 背馳하고는 국가를 보존한 자 | 未有한지라(---)혹자 우매한 邦國엔 質的한 사물은 銷削하고 공허한 文氣가 橫肆하여 浮虛한 議論과 華靡한 詞章으로 自相競爭타가 필경 국가를 소멸하나니”⁹라 하여 物과 事를 우선시하지 않고 실업과 무관한 文의 가치는 의미가 없다고 단정한 바 있다. 그는 사물과 연관이 없는 文氣와 議論, 그리고 詞章의 경쟁적 추구는 결국 국가를 소멸하는 데까지 나간다고 인식할 정도였다. 유원표는 전통적 文人들의 문장과 문의 병폐와 그것이 끼치는 사회적 파장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의 논리 속에는 문이란 전통적인 의미가 아닌 의사를 소통하는 표현 수단으로 나아갈 여지를 내장하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인 문 관념의 균열과 해체를 상상할 수 있을 터이다.

이후 근대계몽기 잡지와 신문매체에서 이러한 논리가 강화되어 전통적인 문은 문학의 영역으로 분화되어가면서 점차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계몽기의 ‘문’은 균질적 의미로 규정되기보다는 여전히 비균질적 모습으로 동요하고 있었다. 새로운 ‘문’ 관념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리터래처’로 전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文도 전면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축소 내지 소멸의 과정에서 일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갱신과 전환을 통하여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⁹ 유원표, 『夢見諸葛亮』 (광학서포, 1908) p.42~43 참조.

요컨대 근대 계몽기의 ‘문’ 관념이 언어와 감성의 등가화와 일치, 정서와의 유기적 결합, 내면에서 구성한 이미지가 그대로 언어화 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의미의 ‘리터래처’와 같은 성격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통적인 ‘문’ 관념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보여주었다.¹⁰ 근대 계몽기 신문매체가 보여주는 다양한 기사는 그 중의 한 예다. 이 점을 감안하면, 근대 계몽기의 ‘문’은 근대어 형성에 기반한 근대 문학의 길에 자양분을 제공할 여지를 내장하고 있었다.¹¹ 더욱이 이 시기의 관보, 잡보와 논설, 그리고 外報나 외국통신 등의 글쓰기를 통해 한문학의 다양한 서사방식과 그 층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근대 계몽기의 지식인들은 한문학의 전통적 글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글쓰기 현장인 신문기사로 투고한 경우, 그 기사는 전통적 글쓰기의 흔적을 짙게 남기거나 새로운 매체의 공간과 제도 속에서 상호 길항하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새로운 문에 대한 인식과 창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간극과 조정, 이를테면 근대 매체와 전근대 한문학 글쓰기의 어울림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적지 않은 반복 학습과 실험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근대 계몽기의 신문 기사를 “서사적 논설”과 “논설적

¹⁰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듯이, 전통적인 ‘문’ 관념에서 ‘문화’와 ‘문명’, ‘개화’로 인식하거나 여기서 국문학의 단초를 찾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류준필, 앞의 논문 참조.

¹¹ 근대어의 형성과 근대 미디어 매체의 언어전략을 통해, 근대어가 매체와 식민체제와 근대 문학과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형성, 발전한 점을 밝힌 것은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 전략」(『역사비평』 통권 71호, 2005년 여름) p.356~377 참조.

서사”로 파악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¹²

3. 근대 계몽기 新聞의 존재 방식과 漢文 敘事

근대 계몽기 매체인 신문¹³을 보면, 논설과 잡보, 소설란에서 적지 않은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¹⁴ 한문 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한문 혼용이나 국문 표기의 기사의 경우에도 한문서사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여기서 근대 계몽기 신문매체의 존재방식을 통해 한문 서사와의 관련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근대 계몽기 신문은 서적과 학교 교육을 통한 계몽활동을 뛰어넘는 수월성과 기능을 가졌다. 유길준도 “蓋人이 消受하기를 爲하여 古今의 書籍이 不少하나 然하나 世界의 物情을 洞知하며 自己의 聞見을 博하여 處世하는 道를 鍊磨하기는 新聞紙의 功이 亦多할 듯”이라고¹⁵ 하고 있는 바, 이는 신문매체의 대중적 영향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¹² 김영민 교수는 근대계몽기 신문의 논설 란에 서사성이 가미된 것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서사적 논설’로 규정하여, 그것을 근대 소설의 발생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 전환기적 서사문학 양식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사적 맥락에서 ‘서사적 논설’은 야담이나 한문 단편 양식 등이 근대 문명의 산문인 신문의 논설과 결합하여 생긴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술, 1997) 참조.

¹³ 자료는 김영민, 구장률, 이유미 편 『근대 계몽기 단형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하(소명출판, 2003)을 주로 활용하여 서술한다. 이후 인용은 출전을 밝히지 않고, 이 책에 없는 신문 기사를 인용할 경우 출전을 밝혀 둔다.

¹⁴ 그것이 논설 란에서 확인할 수 있든, 잡보와 소설 란에서 확인할 수 있든 간에 일단 여기서는 ‘서사’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당시의 서사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아우르는 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근대계몽기의 신문자체가 다양한 서사의 실험장이자 글쓰기의 실험장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의 역동성과 그 실험정신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¹⁵ 『서유견문』 (1895) p.458 참조.

시기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등은 순 한글로 표기하여 지식과 정보의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무엇보다 한글 체를 구사함으로써 여성을 포함한 각 계층의 계몽의식과 계몽지식의 확산을 기획하였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독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볼 때, 신문의 영향력이 크다는 유길준의 언급은 적실하다. 확실히 근대 매체인 신문은 전대에 비해 새로운 방식의 지식 정보의 전달 수단이자 대중화 방식이었다. 기실 지식과 정보의 범위, 이를 전달하는 신속성, 그리고 다양한 독자를 손쉽게 대면한다는 점에서 신문은 전근대 어떤 매체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신문은 근대의 독자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동아시아에서 근대독자의 성립을 거론할 때, ‘서면화’ 혹은 ‘목독’의 방식을 거론하거니와,¹⁶ 이 방식은 근대계몽기 조선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문은 읽기방식을 통해 근대의 독자를 탄생시키는 한편, 훈련 받고 조직된 많은 독자를 양산하였다. 이 점에서 신문은 근대 계몽기 서사의 주체들의 ‘문’ 관념과 글쓰기를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신문의 확산과 독자의 대중화는 판매와 판매망의 확대, 광고란을 통해 더욱 진전되었다. 몇 가지 사례다.

¹⁶ 陳平原은 창작의 대상을 ‘청중’이 아니라 ‘독자’로 설정한 것을 晚淸시기로 보며, 이는 신문과 잡지가 견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소설의 이러한 전달방식 변천(‘구두화→서면화’)이 중국 소설의 서사양식의 변천에 문화적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았다.(진평원 저, 이종민, 역, 『중국소설사학』 살림, 1994. p.27) 일본의 경우도, 근대의 독자가 ‘음독’에서 ‘목독’으로 전환된 것에서 그 계기를 삼고 있다.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마에다 아이[前田受] 저, 유은경, 이원희 옮김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7) 이 역시 신문과 잡지와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근대 독자의 성립은 공히 신문과 잡지에 큰 영향을 받았다.

① 이 회보는 익 토요일에 흥번식 발간하고 파는 처소는 빅지학당 데일방이오 갑슨 미장에 엽전 너폰식이니 사다 보시기를 브라오¹⁷

② 이 회보는 익 토요일에 흥번식 발간하고 파는 처소는 서울 정동빅지학당 데 일방이오 흥장 갑슨 미장에 엽 너폰 일월도 선급 엽돈반 일년도 선급 엽흥량 일곱돈 오피오니 사다 보시기를 브라오¹⁸

③ 새로 출판 흥는 대한 회보는 학문상에 익우 유요흥 말슴이 만흔 지라 정동빅지 학당 뒤 대문 엽희방과 종로 대동서시에서 파는딴 흥장 갑슨 엽오피오니 흥들 선급은 엽 돈반이오니 사셔 보시오.¹⁹

④ 이 회보는 익 토요일에 흥번식 발간하고 파는 처소는 서울 정동빅지학당 데 일방이오 갑슨 흥장 엽 너폰 일삭도 선급 엽돈반 일년도 선급 엽흥량 일곱돈 오피오니 이어 보시라 흥시는이는 겨주와 성명을 분명히 적어 보너지면 전흥여 드리겟습 니이다.²⁰

⑤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인민에게 익우 유익흥 신문이오니 만이 사다들보시오²¹

⑥ 새로 출판 흥는 경성신문은 상무에 익우 유익흥 말이 만코 쏘흥 매미흥째에 더욱 요긴흥니 만히 사셔보시옵 신문파는 처소는 전동 전협관 윤치호씨집이오 흥장 갑슨 엽오피오니 일삭도 선급은 엽 너돈이오 일년도 선급은 엽너량두돈이옵²²

⑦ 도야 스이에 정론과 당의가 건건 악악하야 일세를 풍동흥는 모양이 이슴으로 시세에 변화 흥이 도석을 두고 측량치 못홀지라 금일에 오인이 국민을 두고 측량치 못홀지라

¹⁷ 『협성회회보』 데일권 일호(한광무이년일월일일) 1898년 1월 1일 참조. 협성회는 배재학당 학생회인 協成會가 주간으로 발간하던 회보다. 이 회보가 천부씩 발간하여 호응이 있자, 1898년 4월 9일부터 일간으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익일신문』으로 바꾼다.

¹⁸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이호(대한광무이년일월팔일) 1898년 1월 8일 참조.

¹⁹ 같은 글 같은 곳.

²⁰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삼호(대한광무이년일월십오일) 1898년 1월 15일 참조.

²¹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사호(대한광무이년일월이십이일) 1898년 1월 22일 참조.

²²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십호(대한광무이년삼월오일) 1898년 3월 5일 참조.

금일에 오인이 국민을 위하야 천신 만란을 무릎쓰고 그 근본을 발휘하야 아모도록 기명의
주의를 널리발고하야 문명진보를 기약고 권면하자는 주의기로 특별이 갑을 간략히 하야
사방 첨군즈게 널리 보시도록 주장을 삼으오니 대기는 좌에 기지 하노라

훈장 갑 엽너푼
한달 선급 열입급돈
석달 선급 엽두양
여섯달선급 엽성량아홉돈
일년선급 엽일곱량 아홉돈

각지방에서 신문보시는 이는 우체로 갑을 짜로 보너지오

서울 오서안에 분전하는 것과 각 지방에 우체로 보너지 법은 간절이 신속함을 힘써 우리
신문보시는 모든군즈의 가득히 깃꺽게함을 주장하겟소²³

⑧ 대한신보는 광무협회에서 너는디 학문상에 락우 유익하며 외국스정을 명백히 기지
홀터이오 일요일에 발간하며 갑은 일장에 엽 오피이오 일삭조는 엽 두푼이오 룰삭도는 엽
훈량 훈돈이오 판미쇼는 명동 경경학당너 본회 스무쇼와 종로대동서시 이오니 만히
사셔보시오²⁴

⑨ 새로 출판 하는 대한 황성신문은 상무에 락우 유익하말이 만코 쏘흔 매릭 홀재에
더욱 요긴하니 만히 사셔보시옵 신문과는 처쇼는 전동 전협판 윤치호씨 집이오 훈장 갑은
엽 오피이오 일삭도 선급은 엽 너돈이오 일년도 선급은 엽너량 두돈이옵²⁵

⑩ 근일에 데국신문이 새로 낫난디 우리 덕일신문과는 도모지 상관이 업스니 혹 신문
보시는 군즈들이 데국신문을 덕일신문으로 그릇 아실 듯 하기로 즈에 광고하느니라²⁶

²³ 『덕일신문』 데일권 일호(대한광무이년스월십일일) 1898년 4월 19일 참조.

²⁴ 『덕일신문』 데일권 삼구호(대한광무이년스월삼십일) 1898년 4월 30일 참조.

²⁵ 『덕일신문』 데일권 스호(대한광무이년스월십삼일) 1898년 4월 13일 참조.

²⁶ 『덕일신문』 데일권 구십륙호(대한광무이년팔월십팔일 목요일) 1898년 8월 18일 참조.

신문 광고란에 실린 신문 판매와 새로 발간한 신문의 선전 문구다. 신문 판매는 1895년에 官報도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관보와 私報를 판매하고, 이를 구독하는 사람이 존재 한다는 사실²⁷은 신문의 대중성을 가늠할 수 있다. 신문은 판매를 통해 확대한다는 점에서 상업성을 추구하였다. 신문에 실린 기사 역시 신문이 지닌 ‘상업주의’와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문기사의 경우 판매를 고려하면, 대중의 오락성과 통속성을 염두에 두었다. 여기서 근대 계몽기에 신문의 존재방식을 고려해 보자.

주목할 사항은 ‘서사주체와 독자’의 만남, 그리고 ‘신문기사’의 형성과정이다. 이러한 만남의 방식과 형성과정은 한문서사와 유사성을 지닌다. 조선조 후기, ‘전’, ‘야담’, ‘인물기사’와 같은 한문서사는 구연과정과 기록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탄생한 양식이 바로 野談(혹은 漢文短篇)인데, 이 원리는 다양한 한문서사의 양식으로 활용된다.²⁸ 한문서사에서 ‘口演’이 간여하고, 제보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서사 주체가 서사로 정착하는 과정은 한문 서사 양식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역할이다.

²⁷ 『官報』의 경우 1895년 開國 504년(1895년) 6월 1일자를 보면 官報定價表가 처음 나오는데 당시 官報 1부의 값은 一錢이었다. 그런데 一箇月은 二兩五錢이었으며, 六箇月은 十五兩, 一箇年은 三十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당시 관보를 정기 구독한 층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보의 판매와 구독은 새로운 글쓰기와 근대적 독자를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²⁸ 조선조 후기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에 구연이 간여하면서 이야기가 다양한 서사로 정착되고 양식이 상호 교섭한다거나 서사양식이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는데, 그 자체가 역동성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는 진재교, 「구연전통과 이조 후기 서사양식의 변모」(『한국한문학회연구』 제22집, 1998) p.401~435와 「한국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대동문화연구』 제40집, 2002) p.101~135 참조.

제보자의 경우,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있는가 하면 개인 체험을 들려주거나 직접 견문한 사건과 인물의 행적을 구술하기도 한다. 서사 주체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근거로 작품으로 만든다. 여기서는 이미 알려진 이야기나 사건과 정보가 문헌으로 정착되었다가, 다시 약간의 첨삭을 거쳐 다른 문헌으로 전송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文獻傳承이라 한다. 이를테면 野談에서 野談으로 혹은 野談에서 傳으로, 혹은 傳에서 記事로와 같은 사례다. 이는 같은 이야기가 다른 서사양식으로 轉載되는 경우다.

신문 기사 역시 한문 서사에서의 문헌전승과 같이 신문에서 다른 신문으로 전제된다. 몇 가지 사례다.

① 아라사 희군대신이 흑희에 잇는 함디아령관에게 명하야 군함 십일척을 모도 수리하고 외양에 나아가 싸호기로 준비하고 다시 령을기다리라고 하였더라 (이십칠일 독립신문)²⁹

②
今朝以來嘉義에서는布袋嘴方位에砲聲을聞得하고想我海軍인가陸軍의下陸을準備하야잇쓸듯
하더라(日本官報)³⁰

③
又日本國에서는臺灣事務整理를爲하야五月二十一日에勅令으로써臺灣事務局官制를頒布하야
伊藤博文으로는該局總裁오 (日本新聞抄譯)³¹

④ 淸國湖北造幣局的開始라

²⁹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오호(대한광무이년이월오일) 1898년 2월 5일 참조.

³⁰ 『官報』 第154號, 開國 504년(1895년) 9월 5일 火曜, '外報' 참조.

³¹ 『官報』 第77號, 開國 504년(1895년) 6월 1일 月曜, '外報' 참조.

曩者에湖廣總督張之洞이經營하던新式銀貨鑄造所는湖北省武昌에建設하여去月中旬부터開始하여其鑄造한銀貨는호남南京에送付하여通用케함 (上海滬報)³²

②, ③, ④의 기사는 일본의 官報와 新聞, 그리고 청나라 上海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기사를 轉載하여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①의 기사는 『독립신문』을 전재한 것이다. 이처럼 이 시기 신문들은 『관보』의 소식을 고정란으로 만들어 『官報』의 기사 일부를 따서 전재하였다. 요컨대 타 신문 기사의 전재는 조선조 후기 지식의 유통과 서사의 유통과정에서 보여주는 과정을 연상시키는 바 있다. 특히 조선조 후기 筆記類에서 어떤 지식·정보가 문헌전승으로 轉載될 경우, 흔히 ‘簡記方式’을 차용한다. ‘簡記’는 저자가 독서물을 통해 특정한 주제나, 흥미를 가진 학술적인 문제와 인물, 혹은 특기할 만한 사건과 그 인물과 관련한 이면을 기술하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³³ 여기서 차기의 대상은 기존 문헌에 있는 사안을 근거로 再轉載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중반의 필기인 洪翰周(1798~1868)의 『智水拈筆』의 한 대목은 이를 적실하게 보여준다.³⁴

홍한주는 이국 문물을 소개하면서 그 지식·정보를 근거로 張維(1587~1638)의 『谿谷漫筆』을 들고 여기서 전재한 것임을 밝히고

³² 『官報』 第77號, 開國 504년(1895년) 6월 1일 月曜, ‘外報’ 참조.

³³ 조선조 후기 차기체 방식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진재교,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한국한문학연구』 36집, 2005) p.363~416 참조.

³⁴ 『지수염필』 권7, ‘痰破菰’, “痰破菰者, 不知何草, 而始出於呂宋國. 宣廟壬辰後, 得之倭人, 取子以種之, 今則盛行於天下. 其說詳見谿谷漫筆矣.” 痰破菰는 淡芭菰, 淡芭芘, 淡芭姑, 淡芭菰, 淡芭菰, 淡婆姑, 談婆枯라고도 하는데, 오늘날의 담배[tabaco]를 말한다.

있다. 사실 담배에 대한 지식·정보를 소개한 것은 『지수염필』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다. 담배와 관련한 『계곡만필』의 기록은 후대로 오면서 다양한 필기류에 다시 전제된다. 18·19세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서적의 유입과 유통의 결과, 특정 지식·정보가 다양한 문헌으로 전제되고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는 지식·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더욱 심화시켜 갔다. 이 점에서 조선조 후기 필기류에 보이는 지식·정보의 유통과 이를 기록하는 방식과 원리는 근대 매체인 근대계몽기 신문의 전제방식과도 동일하다.³⁵ 특히 앞의 사례처럼 외국 신문을 전제한 것은 야담의 전제방식에 대응시킬 수 있다. 야담의 일부 작품은 중국의 필기를 전제하였다. 예컨대 이원명이 편저한 야담집 『동양회집』은 청나라의 沈起鳳(1740~?)의 필기소설집인 『諧鐸』의 작품을 다수 수용하여 전제하였다.³⁶ 야담이 외국 문헌을 전제하여, 타 야담집으로 문헌전승한 것과 신문의 기사 전제 방식은 동일하다.

신문의 잡보란이나, 소설란에 보이는 기사 역시 한문서사의 성립원리와 겹친다. 초기 신문은 기자의 취재를 통해 기사를 만들기보다, 독자의 투고와 기존의 정보와 사건의 제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몇 가지 사례다.

①

官報集蒐는時間은每日午後一時로定호니其時를過호는諸報告는翌日官報에記載치아니호³⁷

³⁵ 신문에 보이는 '시사토론체 단편'이 시사적 사건이나 문제를 서사주체의 비평이 덧붙여지면서 서사로 전제 되는 경우 구성 역시, '차기체 필기'의 서사구성과 흡사하다.

³⁶ 여기에 대해서는 이강욱, 「『동양회집』의 『해탁』 수용양상」(『한국한문학회연구』 특별호, 1996) 참조.

³⁷ 『官報』 第77號, 開國 504년(1895년) 6월 1일 月曜, '外報' 참조.

② 누구시든지 각종 학문에 유조흔 글을 지어 보드시면 우리 회보에 기지
헝겝습느니다³⁸

③ 누구시든지 론설을 지어 보드시랴에 국문으로 쓰고 거주와 성명을 즈세히 적어
보드시면 본회보에 기지헝되 만일 성명긔기를 원치아니헝면 성명은 쓰지안코 글만 기지
헝겝소다³⁹

④ 신문에 기지헝 말이 잇거든 즈세히 적어 본샤 대문밖 투합통에 갖다 녀시되 성명
거쥬가 분명치 안으면 기지치 아니 훌터이오⁴⁰

제시한 사례는 투고에 대한 안내문인데, 주로 잡보란과 광고란에 실려 있다.

①은 『관보』의 경우로 다른 사례와 사정이 다소 다르다. 학문적인 것이나, 신문기사로 낼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투고할 수 있다는 문구인데, 이러한 광고는 신문 독자의 투고를 확대시켜 신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이 시기 신문은 위의 사례처럼 주로 견문한 것과 독자가 투고한 내용을 첨삭하여 기사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

① 엇던 사람이 본샤에 편지헝기를 일전에 시흥쌍에 불일이 잇서 갖다 오느길에 날이
저문고로 급히 오다가 남대문에 이른즉 문이 발셔 닫쳐기로 훌길업셔 문열기를 기다리든
차에 엇더흔 외국사람이 와 문을 두드리며 열기를 청헝되-----⁴¹

② 북경셔 온 편지를 보니 청국 대간이 황태의게 상쇼헝고 말헝되 리홍장이가 아라샤에

³⁸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오호(대한광무이년이월오일) 1898년 2월 5일 참조.

³⁹ 『협성회회보』 데일권 데칠호(대한광무이년이월십이일) 1898년 2월 12일 참조.

⁴⁰ 『덕일신문』 데일권 십일호(대한광무이년스월이십일일) 1898년 4월 21일 참조.

⁴¹ 『덕일신문』 데일권 십일호(대한광무이년스월이십일일) 1898년 4월 21일 참조.

돈 일씩 팔십만원을 빚아먹고 대련만을 주었다고 하였는데---⁴²

③ 연강에 도적이 심하던 말은 전호에 기지하였거니와 쏘들으니 검은돌 해주주인 박원철의 집에 도적 수십명이 달려 들어 돈 스천량을 달나흔즉----⁴³

④ 그 하회는 엇지 되었는지 일시 이약이로 드른 것이니 하도 이상하기로 기지호노라⁴⁴

⑤ 남양에 유지헌선비가 본사에 투서 하였는데 세상 부귀고락이 엇다흔 줄 설명하란 뜻이기로 그디로 등즈호오⁴⁵

⑥ 서울 친구 하니 어느 시골 사름으로 더브러 슈작흔 말을 본사에 와서 전호논디 두 사름의 언어가 비록 서로 반되는 되었시나 쏘흔 각기 경황을 변론홈인 고로 좌에 기즈호노라⁴⁶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사는 독자의 제보를 통해 만들어졌다. 제보는 ‘편지’, ‘투서’, ‘들은 이야기’ 등의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전문한 이야기가 신문의 서사로 되는 과정은 조선조 후기 한문 서사의 형성과정에서 口演이 간여하는 것과 닮았다. 구연을 통한 기록화는 국문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⁴⁷ 한문 서사, 이를테면 야담, 전, 인물기사에서 드러난다. 한문 서사 성립과정의 몇 가지 사례다.

⁴² 『대일신문』 데일권 십일호(대한광무이년스월이십일일) 1898년 4월 21일 참조.

⁴³ 『대일신문』 데일권 십스호(대한광무이년스월이십오일) 1898년 4월 25일 참조.

⁴⁴ 『대일신문』 <동도 산협 등에> 1898년 4. 20. 룬설 p.203~204(김영민, 구장률, 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소명출판, 2003)

⁴⁵ 『대국신문』 <남양에 유지헌 선비가> 1899년 11. 22. 룬설 p.328~330(김영민, 구장률, 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소명출판, 2003)

⁴⁶ 『대국신문』 <서울 친구 하니> 1901년 3. 22. 룬설 p.437~438(김영민, 구장률, 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소명출판, 2003)

⁴⁷ 장편기문소설에서 구술성(구술적 사유)과 기록성(기록적 사유)이 혼재·조화되어 있는 점을 탐구한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① 윤공의 만자제 심재씨가 이 일을 나의 선친께 이야기해 주어서, 나 또한 이를 들을 수 있었다.⁴⁸

② 갑오년(1894) 봄에서 여름이 될 즈음은 호남에서 동학란이 일어난 때이다. 어떤 군인의 처 某召史가 한양에서 남편이 죽은 곳으로 와서 곡을 하는데, 슬프게 곡만 하고는 가 버리는 것이었다. 이를 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⁴⁹

③ 이야기 주머니 김용은 이야기를 아주 잘 하여 듣는 사람들이 다 포복절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이 바야흐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잡아 살을 붙이고 양념을 치며 착착 자유자재로 끌어가는 재간은 참으로 귀신이 돕는 듯하였다. 가위 익살의 제일인자라 할 것이다.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음미해 보면 세상을 조롱하고 개탄하고 풍속을 깨우치는 말들이었다.⁵⁰

④ 나는 마침내 들은 이야기를 이와 같이 서술하니, 애오라지 늦기 전에 한번 만나는 행운을 기대하며 또 늙어서 만나지 못하면 이 글로 마기사를 만난 듯 볼 것이다.⁵¹

⁴⁸ 任邁(1711~1779), 『雜記古談』, 「神劍」, “尹公之胤, 心宰氏, 以此事, 傳說於我先君, 而余亦得聞焉.”

⁴⁹ 宜田 陸用鼎(1843~1917)의 「軍人妻某召史傳」 “歲甲午, 春夏間, 湖南教匪亂時, 有一軍人妻某召史, 自京來哭其夫死處 哭盡哀而去焉. 聞諸觀召史者” 작품이 수록된 『의전문고』는 新式活字本으로 1912년에 아 들인 鍾允과 손자인 定洙 등에 의하여 刊印되었다. 육용정의 본관은 管城, 初名은 在坤이며, 號는 宜田이다. 任憲晦(1811~1876)의 문하에서 受學하였다. 그는 개화사상을 옹호한 인물이다. 그의 독서 체험과 정보습득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그가 지은 『宜田記述』 권3을 보면, 그의 개화사상은 기본적으로 서양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문물과 국제질서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전기술』에 의하면 『瀛環志略』·『海國圖志』·『地理全誌』와 ‘서양 각 국의 역사책’이 언급되어 있고, 일본의 사상가인 시오타니세홍[鹽谷世弘]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다. 그의 정보는 또한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와 갑신정변 이후에 간행된 『한성주보』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체험한 것으로 보인다.

⁵⁰ 이우성·임형택 편역, 『李朝漢文短篇集』 (일조각, 1984) 중, ‘設囊’ 참조.

⁵¹ 申光洙, 『石北集』, 「書馬騎士事」, “余遂叙其所聞如右, 庶幾未老而一遇之幸爾, 又老而不遇, 卽吾而如見馬騎士云.”

①은 野談의 경우며, ②는 傳의 경우다. ③은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야기꾼의 존재를 보여준다. ④의 경우는 記事文을 통해 한 인물의 특이한 행적을 듣고, 이를 人物記事로 창작한 경우다. 모두 제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사로 구성하고 있다. 모두 ‘야담’과 ‘전’, 그리고 이야기꾼의 존재, ‘기사문’에서의 구연전통의 예시들이다. 특히 ②의 경우는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立傳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근대 계몽기와 겹친다. ②의 내용은 독자가 제보하고 이를 매체공간에서 기사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잡보란의 한 대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데국신문』의 한 기사도 같은 맥락을 보여준다. “그 후 몇히만에 황갑호씨가 과거하야 츠츠 승츠하야 병도판서를 혼지라 분리 니야기를 도화하야 미양 문직들의게 니야기 헝기를 청헝기도 헝고 자기도 니야기를 헝더니 일일은 길에 버린 물건이라도 집어 가지지 안는 니야기가 나서 셔로 슈작하는 중에 황씨가 이전 초립동이 시절애 픽물전디 엇어서 주던 스실을 일장 설화헝더니”⁵²와 같은 내용은 표기만 한글로 되어 있을 뿐, 敍事化 과정은 야담의 성립방식 그대로다.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서사로 구성하는 경우와 같다. 서사의 내용과 구성 방식 역시 야담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 ‘서사주체와 독자’가 만나는 경우, 신문기사와 한문 서사를 비교해 보자. 한문 서사의 경우 구연과 기록과정을 거치거나, 문헌전승을 통한 서사화 과정을 거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양자 모두

⁵² 『데국신문』 <正己及人>(1906.10.11~12 小説).

“쓰기(서사주체)—읽기(독자)”의 전달 방식을 통해 서사주체와 독자가 만난다.⁵³ 한문 서사의 경우, “이야기하기(제보자)—듣기(서사주체)—읽기(독자)”⁵⁴의 구연전승의 경우와, “쓰기(서사주체)—읽기(독자)”와 같은 문헌전승이라는 두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서사주체와 독자의 만남과 같은 신문기사의 성립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근대계몽기 초기 신문의 기사 역시 제보자를 통한 구연과정을 통해 성립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기사의 서사는 “이야기하기(제보자)—듣기(서사주체)—읽기(독자)”의 과정을 통해 서사주체가 독자와 만난다. 하지만 서사주체가 직접 취재하거나 견문할 경우, “쓰기(서사주체)—읽기(독자)”의 방식으로 독자를 만난다. 그렇기는 하나 신문이 號數를 거듭할수록, 서사주체가 직접 기사를 취재하거나 견문하여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 때 “쓰기(서사주체)—읽기(독자)”의 방식을 통해 독자와 만나는 경우도 늘어난다. 독자 역시 이러한 익숙한 방식을 받아들이며 신문기사를 읽어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서의 전환을 근대적 징표로 파악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서사주체와 독자’의 소통방식에서 “이야기하기—듣기”에서 “쓰기(서사주체)—읽기(독자)”로의 전환 혹은

⁵³ 이러한 구두화에서 서면화 문제를 중국 근대전환기 소설 서사학의 중요한 국면으로 파악한 경우는 진평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평원 저, 이종민, 역, 『중국소설 서사학』 (살림, 1994) 참조. 또한 한국의 신문이 근대 소설에 미친 영향을 이러한 구도로 파악하여, ‘이야기하기(講談師)/듣기(聽衆)’에서 ‘쓰기(作家)/읽기(讀者)’의 방식(서면화)로 전환된 것을 밝혀 소설의 창작과 감상의 근대적 전환을 거론한 것으로는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의 시각』 (소명출판, 1999) 1부, 「신소설 형성의 양식적 기반」 참조.

⁵⁴ 이는 구연과 기록의 두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음독→목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대의 독자가 탄생한 것으로 설명한 점은 경청할 만하다. 기왕의 연구에서 이러한 전환과정이 신문이 서사에 미친 영향이자, 근대적 독자의 성립에 연결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사안은 근대 계몽기 신문은 물론 한문 서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서사주체와 독자의 만남, 이를 통한 근대 독자를 형성한 원리 자체는 한문 서사와 신문에서 그 상동성의 단초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신문과 한문 서사는 질적인 면에서 확연히 갈린다. 신문의 독자는 여성을 포함하여 계층적 구분이 없는 다중이며, 신문기사는 독자를 향해 열려 있다.⁵⁵ 반면에 한문 서사의 독자는 여성과 다수를 배제한 소수의 한문지식인 집단이며 다수의 독자에게 닫혀 있다.⁵⁶ 뿐만 아니라 신문기사는 공간에 관계없이 대량 유통되며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지만, 한문 서사의 경우 베끼거나 빌려 본다는 점에서 공간적 제한성과 접근성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강조할 점은 서사주체와 독자와 만나는 원리이다. 이를테면 한문 서사 역시 신문이 보여준 서사주체와 독자의 만남과 같은 원리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실체일 것이다.

4. 한문 서사의 영향과 근대 계몽기 매체 - 신문이라는 공간

한문 서사의 단편성과 신문기사의 단편성과의 관련성을 주목해 보자.

⁵⁵ 국한문과 한문 표기를 한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표기수단에 관계없이 다수를 향해 열려 있다.

⁵⁶ 차기체 필기를 비롯하여 야담, 전, 기사의 독자층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문헌을 빌려 읽거나 아니면 베껴서 이를 돌려볼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사제 간, 친구 간, 인척 간, 집안 간 등으로 매우 제한된다.

흔히 구연이 개입된 서사는 단일한 스토리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일한 스토리 중심의 전달은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사에 등장하는 인간의 내면이나 객관 현실에 대한 자세한 재현을 비롯하여 현실에 대한 심원한 분석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단일한 스토리 중심은 있는 사실을 단선의 서사로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심리적 내면 속의 허구와 상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구연자 [이야기 제보자] 나 청자 역시 사건 혹은 사건과 관련한 인물의 행위를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단선적 이야기 구조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서사는 순차적 시간 구조, 단순한 플롯, 묘사의 사실성 보다 있는 사실에 흥미를 덧붙여 전달하는 스토리 중심의 단편을 구성한다.

신문기사나 한문 서사도 서사주체가 사건의 구연에 기대어 기사로 만들거나 서사작품으로 구성한 경우가 많다. 이 때 두 경우 모두 단편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신문은 분량과 면수의 제한 때문에 긴 사건이나 복잡한 기사를 싣기 어렵다.⁵⁷ 근대 계몽기 신문이 단일 사건을 짧은 지면에 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문 서사 또한 대체로 분량이 짧은 ‘단편’ 지향을 보여준다. ‘傳’이 그렇고 ‘野談’이 그렇고 ‘人物記事’가 그러하다. 이러한 한문 서사의 단편 지향과 구성 원리는 신문의 기사와 단편적 요구에 상호 호응하는 바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는 근대 계몽기 신문 일부는 한문 서사의 구성방식에서 ‘단편적 성격’을 발견하고, 이를 기사에 활용한 것으로

⁵⁷ 다소 긴 경우는 回章의 방식을 차용하여 연재하였는데, 이는 한문과 국문 소설에서의 장회체를 연상시키는 바 있다. 특히 신문의 호가 거듭되어 소설 판이 생기면서 이러한 회장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 역시 한문 서사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이 지닌 공공적 기능이다. 그 기능 중의 하나가 있는 사실과 정보의 가감없는 전달이다. 신문은 기본적으로 있는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 매체다. 있는 사실을 진실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문 서사와 신문의 구성과 배치는 만날 가능성이 많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문 서사는 양식적 특성상, 서사의 주체는 實事에 대한 기록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신문이 추구한 사실의 전달과 그 맥락은 연결된다. 신문의 사건기사를 야담에, 인물기사를 ‘記事文’이나 ‘人物傳’에 대응시킬 수 있다. 사실 근대 계몽기 초기, 신문의 서사나 서술은 한문 서사의 방식과 그 원리를 원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초 신문에 간여한 지식인들은 대개 한문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문은 전통 한문 서사의 소재를 취재원으로 삼고 이를 서사화 하는 방식을 통해 신문의 지면을 메우고 신문 독자를 만났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문은 잡지나 소설과 같은 고정란이 생성될 때까지 독자와 만나면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⁵⁸ 더욱이 근대 계몽기

⁵⁸ 『대국신문』은 1906년 9월 18일 이후, 여러 편의 ‘小說(소설)’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 신문은 1900년 초에 서사적 논설을 통해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小說(소설)’란이 생긴 이후, 단 한편의 서사적 논설도 수록하지 않는다. ‘小說(소설)’도 현실과 관련 있는 작품은 없고, 모두 고전 야담이나, 일화류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경향신문』도 고정적인 ‘소설’란을 두고 지속적으로 작품을 게재한 바 있다. 예컨대 1906년 11월 30일에 연재 발표하기 시작하여, 「정소의 불길」으로부터 1910년 12월 30일 「계와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약 50여 편의 작품에 이른다. 특이하게도 이시기 ‘소설’란에 있는 서사들은 길이 여하를 막론하고 작가명이 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서사에 대한 익명성은 당초에 신문 기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를 통해 전해 받은 것이거나, 다른 서사를 번역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완전한 전업 작가로의 미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신문은 한문의 서사 전통을 적절히 원용하여 이를 신문 지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계몽사상과 접맥시켜 나갔다.⁵⁹ 여기서 신문이 독자를 고려하고 판매를 한다는 점을 음미해 보자. 이는 신문에서 ‘소설란’이 생긴 사정과는 관련이 깊다. 근대 매체는 독자에게 수비게 다가서고 계몽의 극대화를 위하여 문학을 중시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매체는 문예의 공론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문예 공간의 제도적 장치로도 기능하였다.⁶⁰ 이는 근대 계몽기 신문과 잡지의 구성과 지면 배치는 물론, 배치한 기사의 표기방식에서 알 수 있는 바다.⁶¹

특히 신문 독자를 고려하면 기사에서 재미와 흥미를 배제시킬 수 없다. 근대 계몽기 신문이 계몽적 성격을 지향하더라도 판매를 위하여 독자의 재미와 흥미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신문이 판매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는 한 독자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밖에

⁵⁹ 한문의 서사 전통은 신소설과도 연관이 깊다. 예컨대 신소설과 야담의 관계는 桂巷稗史의 『神斷公案』·『靑樓義女傳』·『車夫誤解』 등에서 그 관련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⁶⁰ 이 점에 대해서는 진재교 외,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성균관대 출판부, 2008) 참조.

⁶¹ 근대매체의 성립과 서사 언어와의 관련성, 나아가 근대 매체가 각종 문학어를 초지역적으로 통합하고 초 시간적으로 연계하며 이른바 ‘근대문학’을 주조하는 주역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기형,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 근대소설의 기원에 대한 매체론적 접근」(『대동 문화연구』 제59집, 2007) p.9~35 참조.

없었을 것이다.⁶² 따라서 이 시기 신문에서 ‘소설란’을 따로 만든 것도 사실 독자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 결과로 읽힌다.⁶³ ‘官報’와 근대계몽기에 발간된 신문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문학의 경우 서사에서 구연이 간여하는 한 허구적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허구가 개입되면 자연히 사실과 길항하면서 흥미를 유발한다. 전근대 한문 서사도 서사주체의 ‘실록정신’과 내용에서의 ‘信史’를 강조하지만, 사실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내용은 ‘據事直筆’의 사실기록의 筆法과 멀어지게 마련이다. 조선조 후기 한문 서사가 허구와 사실의 혼용으로 흥미와 재미를 지향하였듯이, 근대 계몽기 신문 역시 독자의 기호와 계몽성의 수월한 전달을 위해 허구와 사실을 혼용하여 재미를 보여주고, 이를 판매에 활용하였다. 근대 계몽기 매체에서 허구와 사실의 혼용은 公私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사적 영역의 보호를 法制化하기 전까지 양자는

⁶² 근대계몽기 신문이 서사문학 자료를 수록하면서 ‘소설란’을 따로 두어 다른 기사와 구별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의식의 소산이다. ‘소설란’은 1897년 1월 12일의 『漢城新報』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그 외에 단편소설란을 두었던 신문은 『만세보』와 『대한민보』와 『매일신보』 등이며, 단편소설을 처음 수록한 신문은 『만세보』이다. 그런데 국문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대다수의 서사는 논설란에 실려 있다. 나머지 작품은 잡보란이나 ‘기사’ ‘소설’ 혹은 ‘소설’이라고 명기된 소설란에 실려 있다. 다만 <보용> 한 편은 ‘신소설’란에 실려 있다. 『태국신문』이 소설란을 둔 것은 1906년 9월 18일인데, 소설란에 실린 작품들은 그 성격이 ‘이어기담’에 수록된 것과 흡사하다. ‘이어기담’은 소설란이 등장하기 이전 『태국신문』의 논설란에 실리고, 잡보란에 실리지 않았다. 이는 『한성신보』나 『대한매일신보』가 잡보란을 활용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김영민,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 소설의 정착 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현대 문학 연구』 25호, 2005) p.261~300 참조.

⁶³ 정선태는 근대계몽기의 논설이 ‘문학적 의장’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글쓰기의 방식에 ‘소설’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과 연결시키고, 그것은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학이 그 독립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논설란을 빌어 서사문학의 가능성을 실험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당시 논설과 서사의 미분화의 특성을 주목한 것이다. 정선태의 논의도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소명출판, 1999) p.91 참조.

뒤섞이면서 기사화되었다.⁶⁴

당시 신문은 계몽과 흥미를 위해 고담조의 이야기투 서사 방식을 차용하여 지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대 현실에서 기사의 소재를 구한 것이던, 아니면 외국의 사건이나 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기사로 하던, 모두 ‘옛날에 아무개가 있었는데~’와 같은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하여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켰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둔다.

① 근일에 너포 소문을 들은즉 었던 관인 허나이 근본 토호와 협잡으로 유명헌디⁶⁵

② 넷적 서양 어느 나라 직상 혼 분이 잇는디 모습은 극히 어질고 작헌디 큰 병통 허나이 잇스니⁶⁶

③ 금일은 비 축죽오니 이전 우스운 이야기나 좀 합세다⁶⁷

①은 소문을 서사로 배치한 사례인데, 그야말로 이야기 방식의 차용이다. ②는 서양의 인물을 기사로 하면서 “넷적---잇는디”와 같이 읽기 쉽도록 고담조 방식을 서사로 활용하였다. 모두 조선조 후기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거니와, 이러한 서사의 전달 방식은 독자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기에 충분하였다. ③역시 諧謔적 이야기를 서사로 구성하고 있다. 해학적 이야기는 독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준다.

⁶⁴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제4장 p.221~225 참조.

⁶⁵ 『태국신문』 <근일에 너포 소문을> 1901년 7. 27. 룬설 p.464~466

⁶⁶ 『태국신문』 <넷적 서양 어느 나라> 1901년 5. 23. 룬설 p.455~457

⁶⁷ 『태국신문』 <금일은 비축죽오니>(1906.7.12~7.16 俚語奇談)는 장회체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장회 방식은 1906년 신문이 발간되고 난 뒤 역간의 시간을 두고 등장한다. 아마도 장회체 양식을 구체적으로 신문 기사로 활용하는데,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준다.

그 스토리는 서당의 글방선생과 과부의 개과를 서사로 한 것인데, 학동이 주선하여 과부를 개가시켜 수절의 부당함을 비판한다는 내용이다.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당시 웬만한 신문 기사의 서두를 뒤지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구성은 모두 동일하다. 이를테면 “이전에 흐 로인이”, “근일에 엇더흐 친구 흐나이”, “벧적에 소년 남즈 두 사름이”, “어니 고을 윈 흐나이” 등이다. 이는 곧 신문을 기사로 만든 기자가 고답조 이야기 방식으로 기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독자의 흥미는 물론 계몽을 각인하는데도 유익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다.⁶⁸

또한 근대 계몽기의 신문은 애국계몽을 위하여 문학양식으로 익히 알려진 한문 서사를 번역하여 신문의 기사로 배치한 경우가 많다. ‘傳’ 작품을 번역하여 해당 인물의 애국적 삶과 그 모습을 기사로 만든 경우도 있고, 외국의 외국 인물의 전기를 번역하여 기사로 싣기도 한다.⁶⁹ 대상 인물로는 박제상⁷⁰, 김춘추, 을지문덕, 백결 선생과 같은 애국적 인물이 있는가 하면, 고단한 역사 공간에서 고결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까지 두루 포함하였다.⁷¹ 이는 역사적 애국 인물의 전기를 계몽적 글쓰기로 활용한 결과이다.

특히 을지문덕의 전기로 번역하여 전재하면서 그 서두에 “동국

⁶⁸ 이러한 서사 책략은 초기 신문의 논설 란, 잡보 란 등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이다.

⁶⁹ 이러한 사례는 “청국 어떤 선비가 말흐엇기로 대강 번역하여 그 나라 형편을 알게 흐노라”(『태국신문』 <아라스 전 님군 피득황제의 스적> 1899년 10. 12. 론설 p.305~307)에서 알 수 있다.

⁷⁰ 『태국신문』 <신라국 충신 박제상의> 1900년 3. 23. 론설 p.362~364(『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 전집』 상, 소명출판, 2003) 참조.

⁷¹ 이를테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전재하는데, 『태국신문』의 <가각의 흥다반흐는 토 끼타령은>(1900년 3. 30 론설)에 보이는 김춘추 이야기와 <신라국 지비왕 시절에>(1901.2.16 론설)의 백결 선생 이야기가 그러하다.

명장전에 글아티 을지문덕은 평양 석다산 사람이라⁷²”라 언급한 사실은 흥미롭다. 여기서 말하는 ‘동국 명장전’은 耳溪 洪良浩(1724~1802)의 『海東名將傳』의 「乙支文德傳」을 말한다. 그 내용을 검토하면 신문기사는 홍양호의 「乙支文德傳」을 한글의 언해방식으로 옮겨 놓았다. 내용 역시 「乙支文德傳」을 거의 그대로 轉載해 놓았다.⁷³ 이처럼 신문이 애국 인물을 기사로 배치하면서 역사서와 문집류 등의 한문 서사를 활용한 점은 흥미롭다. 독자들은 신문에 실린 인물들을 익히 알고 있는데다, 대상인물들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⁷⁴ 신문이 계몽적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고려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기자가 계몽사상을 직접 제시하기 위하여 기사에 평한 경우가 있다. 기사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기사와 평을 결합시켜 계몽성을 강조하고자 한 경우다. 이는 한문 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사주체의 ‘論讚’과 ‘外史氏曰’과 같은 評과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은 서사주체의 찬과 평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서두에 혹은 중간에 혹은 말미에 두어 작품의 의도와 서술에 개입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평양 감영에 종사했던 한 우국인사의 일을 기사화 하면서 말미에 “우국즈 평론하야 왈 사람에 흥세힘이여 너 일신의 고단힘을 싱각지 안이하고 죽기를 겁너지 안이하고 일을 하야가면 비록 나라 일이라도 성공호지

⁷² 김영민, 구장률, 이유미, 『근대 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그리스도산문』 2003, 소명출판. p.81~83 참조. ‘을지문덕’은 1901년 8월 2일에 실려 있다.

⁷³ 그런데 그 번역 방식이 전통적인 언해본 방식도 주목할 만하거니와, 신문에 실린 번역 기사를 보면 언해의 구기가 심분 느껴진다.

⁷⁴ 이 외에도 『그리스도산문』의 김유신은 『海東名將傳』의 「김유신전」을 언해 방식으로 옮겼고, 고려에 충절을 지킨 원천석과 길재는 문집에서 뽑아 언해 방식으로 옮겼다.

못못홀 일이 업슬 줄을 알깃도다”⁷⁵라고 평한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서 평자를 우국자라 설정한 것도 흥미롭거니와, 평한 내용 역시 신문 기사를 본받아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국사에 매진할 것을 권하는 대목에 이르면 애국 계몽적 논조가 더욱 선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수법은 野談과 傳, 記事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상호 계승관계의 단초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한글 표기와 발화 방식이 한문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의 문제를 짚어 보기로 하자. 한글표기 방식은 한문 언해본이나 한글소설, 시조, 가사 등에서 보던 것이다. 문제는 신문에서 口語 재현 방식은 언문일치와 관련되어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언어를 통해 현실을 재현할 경우, 그 언어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하는 문제는 표기체계를 위해 고심했던 계몽 지식인들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언어는 구어적 성격을 지닌다. 구어를 문자로 표기하여 재현할 때 생기는 핵심 문제 중의 하나는 인물의 발화다. 그런데 한글 표기와 발화의 관계는 얼핏 보면 한문과 관련이 적은 듯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문의 표기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다.

① 英國撤兵

海軍提督부라는臺灣府居留地를수비하는英國水兵에下命하여卽時安平과臺灣府를退去하라하더니-----海軍士官等은公使調電으로提督命令을違反치못한다云하고-----
德國領事に請하여德國艦隊司令官에게保護를乞하더니司令官도亦謝絶하였다함⁷⁶

② 경무스 김지룡 씨가 물헛기를 이는 조선 스톱이라 우리나라 법스에 다스리겠다

⁷⁵ 『태국신문』 <평양 감영에>(1906.7.28~8.7 俚語奇談).

⁷⁶ 『官報』 第八十號, 開國 504年(1895年) 六月四日 木曜, 「外報」.

호고⁷⁷

③ 어제 밤에 본사 탐보원이 셔촌호 친구의 집에 갓더니 못춤 유지각호 四五인이 안져서 공동회 일절노 수작인 란만 호 것을 듯고 그 중요 호 것을 뽑아서 좌에 기지 호노라

(문) 공동회를 파호 후에 시비가 분을 호야 혹은 공동회에서 실슈를 만히 호였다 호고
혹은 정부에서 잘못 호였다 호니 누구의 말이 올흔지

(답) 대한 사람들은 (---) 엇지 몰으리요⁷⁸

④ 강씨가 어이 업시 도라셔며 믹 맛즌 것을 원통하다 호즉 그곳 빅성들의 말이 (예) 그계 누군줄 아나 지평 원임일세 믹만 맛고 돈 아니 썩앗킨 것이 오늘 일수가 도로혀 도흔 모양일세⁷⁹

⑤ 새 학문이 잇는 신씨른 사릅과 넛적 학문민 잇는 구씨른 사릅들이 서로 문답호 이야기가 믱우 지미가 잇기로 좌에 대강민 기지 호노라/구씨가 무려 굴아디 그디가 새 학문이 잇다 호니 내가 호 말을 물으면 그디가 룡히 딕답 호겠나뇨/신씨 왈 무슨 말이던지 물으라 호디/구씨 굴으디 처음에 엇지 호야 하늘과 싸이 싱겟나뇨/신씨 답일⁸⁰

⑥ 魚福孫이 聽得了推窓의響子호고 遂不住地大哭起來호니 淚滂滂如珠落地호며 故作哽咽의聲音호야 向了那宰相前陳訴호디, 小人이 死罪로소이다 小人이 果然死罪로소이다 死罪로로로로로소소소소소소. 語不分明호고 但咽咽地哭來不住어늘⁸¹

인물들이 발화한 것을 구어로 표기한 사례들이다. ①은 전통적 현토와 언해 방식인데, ‘못 호다云 호고’와 같은 표기로 그 발화를 처리하였다. ②

⁷⁷ 『독립신문』 1896.4.25 「잡보」.

⁷⁸ 『독립신문』 1898.12.28, 「공동회에 덕호문답」.

⁷⁹ 『덕일신문』 1898.6.14, 「잡보」.

⁸⁰ 『독립신문』 1899.3.10, 「신구문답」.

⁸¹ 『황성신문』, 36~37회, 1906.11.20~21, 「신단공안」.

역시 ‘물흐기’, ‘다스리’와 같이 간접화법으로 발화를 처리하였다. ③은 비록 (문)과 (답)을 구분해 놓았지만, 발화자에 대한 명시적 언표는 없다. 질문하는 발화자와 답하는 발화자의 영역은 (문)과 (답)을 통해 구분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문을 언해한 방식 그대로다. 한글로 표기한 어휘 외에 懸吐 방식은 한문의 현토와 흡사하다. 특히 한글 표기법과 (문)과 (답)으로 발화자를 나눈 것은, 한문 문장의 언해와 한문의 ‘問曰’과 ‘答曰’에 대응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여기서 ()의 부호를 사용하여 문과 답을 구분한 것은 발화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이다. ④는 발화자가 다르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에)’로 표현하였다. 이는 ‘()’나 ‘(’와 같이 부호를 사용한 사례에 해당된다. 근대 계몽기 신문을 훑어보면 ‘어’ ‘(오’, ‘(아’, ‘(무어’, ‘(에’, ‘(참’, ‘(하’, ‘(웬), ‘(허), ‘(허허), ‘(어), ‘(아), ‘(갑), ‘(을), ‘(」’⁸² 등과 같은 사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부호와 발어사를 함께 구사하는 수법과 동일한데, 모두 발화자의 구분을 모색한 흔적들이다. ⑤는 대화를 재현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방식에서 다시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놓은 사례다. 비록 ‘구씨’와 ‘신씨’와 같은 발화자를 부호와 함께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글아’, ‘답’, ‘왈’ 등과 같은 기왕의 간접방식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 ⑥은 현토본 한문 소설이므로 근대계몽기 한문소설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小人이 死罪로소이다 小人이 果然死罪로소이다”

⁸² 『대한민일신보』 한글판 1910.3.9의 「시수평론」을 보면 ‘(」’를 사용하여 발화자를 구분하고 있다.

死罪로로로로로소소소소소”라고 현토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⁸³ 물론 내용은 “陳訴호디”라 하여 간접 화법을 제시한 뒤, 발화자의 말과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토는 전통 한문의 현토방식을 벗어나고 있다. 곧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실토하면서 울먹이는 과장된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 현토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인물들의 행동과 실제상황을 적실하게 재현하려다 보니, 일반적인 현토와는 다른 방식을 추구한 것이다. 이 역시 전체적으로 한문 현토의 전통에 기대고 있다.⁸⁴ 앞서 거론 한 것 외에 문장 중간 중간에 쓰인 “에, 이, 갓더니, 안져서, دت고, 셔, 호노라, 호야, 호엿다 호고, 에서, 호엿다 호니, 리요,” 등과 같은 사례들도 있다. 모두 한문 현토에서 흔히 쓰는 용례로, 한문 언해본이나 한글 소설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다.

요컨대 근대 계몽기 신문이 보여주는 발화와 문체는 비록 한글 표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이미 한문 표기법과 그 발화방식도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신문에서 발화방식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한글 표기에서 적당한 발화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새로운 글쓰기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이자,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창안이다. 그렇지만 이의 功過는 쉽게 따질 수 없다.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을 다음 단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한문학의 자장

⁸³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에 대해서는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방식」(『고전문학연구』 제24집, 2003) p.183~208 참조.

⁸⁴ 이러한 표현은 사마천의 『史記』 「周昌傳」에서 “臣, 期期知其不可”라 하여 말을 더듬는 것을 ‘期期’라 한 것이나 한문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唯唯’라 하여 대답을 ‘에, 예’라 반복하는 것을 표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현토를 반복하여 울먹이면서 말을 더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역시 한문적 소양과 연관이 깊다.

안에서의 발화와 표기방식의 다양한 실험은 언문일치로 나아가는 노정의 자양분이 되었을 법하다. 무엇보다 한문 언해본과 현토의 표기방식을 활용하여 근대적 표기체계와 구어의 재현 방식을 모색한 것은 근대 매체와 전통문학(한문학 포함)과의 관련성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⁸⁵

5. 맺음말—20세기 초 서사와 관련하여

한문의 서사전통은 근대 매체인 신문과 직간접으로 연결된다. 신문은 문학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문학을 적극 활용하여 문학의 공론 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사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전달하였다. 무엇보다 신문 기사는 한문학과 한문 서사, 그리고 문체와도 상당한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 갔다. 신문 기사는 그 기원과 성립 과정에서 한문학의 서사 전통과 부단하게 관련을 맺고, 그 자양분을 받아들여 새로운 문학텍스트의 길을 열어주는데 기여하였다. 여전히 근대 서사의 성격을 ‘이식의 절대성’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국 전통의 서사는 근대매체와의 길항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 확산되어 간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 서사가 문학 텍스트로 나아가기 위하여 조련된 장소와 실험의 공간은 다름 아닌 근대계몽기 매체인 신문과 잡지라는 점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문이 처음부터

⁸⁵ 물론 이러한 발화 방식과 표기에 대한 고려는 국문소설이나 가사 시조 등의 관습에서 원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조나 가사, 한글 소설의 어휘나 표기방식 역시 한문 언해나 현토를 고려하여 발생 발전해 온 점에서 발화방식이 한문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완성된 근대의 서사 양식을 지면 속에 배치하지 않았다. 계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의 서사를 활용하고 서사 언어를 변모시켜 기왕 서사 문학을 견인하고 동시에 서구의 ‘리터래처’의 정립을 촉진시켰다. 그 과정에서 매체는 각종 서사와 문학어를 시공간적으로 통합하고 연계시켜 ‘근대문학’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⁸⁶

근대계몽기 지식인들은 ‘한문 소양’을 지녔다. 그들은 ‘한문학’의 소양과 체득을 통해 글쓰기를 하였고, 전통적 글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문 소양을 스스로 깨닫거나 그렇지 않건 간에 한문학의 경험을 근대 매체인 신문 기사에 접목시켜 지식과 정보로 배치하였다. 그 결과 계몽지식인들은 신문의 공간 속에서 한문 서사를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시켜 근대적 서사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현실과 자신의 상호 소통하면서 서사행위를 시험하였다. 더러 이러한 서사행위가 근대적 서사와 엮나가는 사례도 있었지만, 한문 서사 양식을 전환시켜 새로운 가능성의 계기를 주었다.

그 결과 일부 신문의 글쓰기는 전통적인 문장관의 자장으로부터 결별하며 새로운 서사행위로 귀결되었다. 그런 점에서 신문기사는 근대계몽지식인들의 새로운 실험이고, 근대 매체인 신문의 공간은 서사 실험의 장이었다. 요컨대 근대 계몽기 지식인들은 신문매체를 통해 한문표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표기체계를 모색하거나, 언문일치의 글쓰기를 추구하고 계몽사상을 드러내었다. 더욱이 이러한 서사는 근대 서사의 기원으로 근대소설 형성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⁸⁶ 근대 매체와 근대 문학의 형성에 대해서는 한기형,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 근대소설의 기원에 대한 매체론적 접근」(『대동문화연구』 제59집, 2007) p.9~35 참조.

하지만 근대 계몽기 초기, 매체 공간에서의 실험은 ‘전에 없던 서사’의 출현을 다양하게 보여주기보다, ‘있었던 서사’의 재배치를 통하여 계승하려는 양상을 보여 준다. 우리는 근대 매체의 공간에서 한문 서사를 활용하여 ‘있었던 서사’를 재배치하여 기사로 배치하는 사례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험은 이후 ‘리터래처’의 정립에 기여하여 신소설과 단편소설양식의 시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한문학의 전통 서사가 근대 계몽기 서사에 기여한 공일터이다.

우리는 근대 계몽기에서, 근대적 의미의 문학 장르나 혹은 양식의 시원과 기원만을 찾는 데에 너무 익숙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현실과 소통하고 그것을 텍스트화하면서 끊임없이 그 의미망을 확장시켜 왔던 한문 지식인의 전통적 글쓰기에 대한 지적 탐색을 간과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단선적인 양식사의 시각으로 전통 서사를 편향적으로 재단해 왔다. 그리하여 근대 계몽기의 문학을 서구의 리터래처와 소설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근대 문학이 어떤 단계를 거쳐 서구 문학의 길로 이행해 갔던 가를 설명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이 시기 문학의 특수성을 지닌 서사의 진면모를 해명하는데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이러한 연구 태도는 서구의 분과학문 체계가 근대 우리 학문에 이식된 결과의 산물일 수 있다. 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는 기왕의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신문이 보여준 그 자체의 다양한 서사양상과 그 실험의 양상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근대 계몽기 서사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이태준이 “작가의 ‘예술’을 보려거든 단편을 보라”고 했던 말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급은 한문서사가 그 단편적 면모를 통해 빼어난 예술성을 추구한 문학적 관습과 작가 정신과도 그리 비껴나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혹 근대 소설사의 길에서 제기된 단편의 주류성 문제⁸⁷에서 간과되어 온 것이 한문 서사전통과의 연관성은 아닐까? 한문 서사전통의 문학적 관습과 그것이 지닌 미학적 특성에서 한문 소양을 지닌 근대 소설 작가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신광수, 『石北集』,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84.

한글판 『대한미일신보』

『독립신문』

『대국신문』

『미일신문』

『협성회회보』

『황성신문』, 36~37회.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제4장 p.221~225 참조.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솔, 1997 참조.

———, 「1910년대 신문의 역할과 근대 소설의 정착 과정-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현대

⁸⁷ 박현호,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단편양식의 주류성 문제」,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p.67~101 참조.

БЪЛГАРИЯ И КОРЕЯ, 2012

- 문학 연구』 25호 2005. p.261~300 참조.
- ,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현대문학 연구』 제43집, 2011. p.97~128
참조.
- 외, 『근대 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집』, 소명출판, 2003.
- 류준필, 「‘문명’·‘문화’ 개념의 형성과 ‘국문학’의 발생」, 『민족문학사학회』 제18호, 2001.
p.6~41 참조.
- 마에다 아이[前田受] 저, 유은경, 이원희 옮김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이룸, 2003.
- 박현호,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단편양식의 주류성 문제」,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p.67~101 참조.
- 심경호, 「한문산문의 기록성과 국문산문과의 관련성」, 『한국한문학연구』 제22집, 1998.
p.80~84 참조.
- 이강욱, 「『동양회집』의 『해탁』 수용양상」, 『한국한문학연구』 특별호, 1996. p.459~ 516
참조.
-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p.91 참조.
- 정환국, 「애국계몽기 한문현토소설의 존재방식」, 『고전문학연구』 제24집, 2003. p 183~208
참조.
- 진재교, 「구원전통과 이조 후기 서사양식의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제22집, 1998. p
401~427 참조.
- ,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대동문화연구』 제40집, 2002. p101~135 참조.
- , 「19세기 차기체 필기의 글쓰기 양상」, 『한국 한문학연구』 제36집, 2005. p.363~416
참조.
- 진재교 외, 『문예공론장의 형성과 동아시아』, 성균관대 출판부, 2008. 참조.
- 진평원 저, 이종민, 역, 『중국소설서사학』, 살림, 1994. p.10~310 참조.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의 시각』, 소명출판, 1999. p.10~30 참조.

——,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 전략」, 『역사비평』 통권 71호, 2005년 여름.
p.356~377 참조.

——,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 근대소설의 기원에 대한 매체론적 접근」,
『대동문화연구』 제 59집, 2007. p.9~35 참조.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 근대매체와 근대언어질서의 상관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6. p.183~218 참조.

홍상훈, 『전통시기 중국의 서사론』, 소명출판, 2004. 제2장 참조.

Abstract

Jin, Jae-Kyo

A Direction of Literary Chinese in Korean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 from Narration in Literary Chinese to Narration in the newspapers -

The narrative tradition of *Hanmun* (i.e., Literary Chinese in Korean) is directly and indirectly associated with the newspapers which were the media in the modern times. The newspapers showed a favorable attitude to literature before anything else, and as they made full of literature, they not only institutionalized the stage of the public discussion about literature, but also relocated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the articles. Above all, the articles were building up a relevant relation with *Hanmun*, Narration in *Hanmun*, and the style.

In other words, the newspaper articles had a constant and important relation with Narration in *Hanmun* from its origin and establishing process, they obtained "nourishment" from it, and they contributed to opening up the way of a new literary text. Still, there is a stream to deal with Narration in the modern time as 'the absoluteness of transcultura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tradition of Korean narration had been transformed and spread out while competing with the media in the modern times. In addition, it is needed to pay attention to the roles of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as the media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which were likely to the training fields and the experimental labs in order for the traditional Narration to be developed to the literary text. At the beginning, the newspapers did not carry it in their pages the completed modern narrative style. The newspaper used the traditional Narr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Enlightenment, transfigured language in the traditional Narration, led the literary trend at the period of the modern times, and at the same time, expedited founding the concept of the western 'literature'. In this process, as the media spatio-temporally unified all sort of Narrations and the literary terms and linked them each other, they had influence on forming 'modern literature'.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had 'the knowledge of *Hanmun*'. They did writing with the knowledge of

'*Hanmun*' and through experience, so it was common that they were not free from the traditional writing style. As recognizing the knowledge of *Hanmun* or not, the experience of *Hanmun* grafting into the articles in the newspapers which were the media in the modern times appeared a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a result, as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converted Narration in *Hanmun* into new knowledge within the space of the newspapers, they sought a possibility of the modern Narration or tested their narrative writing as communicating themselves with the real world. Even though occasionally, this narrative writing was off the point of the modern narrative style, it provided a new potential opportunity as the narrative style in *Hanmun* was changed. Consequently, writing in some newspapers separated from the magnetic field of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writing and it ended in a new narrative writing. In that sense, the newspaper articles were new experiments to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and the newspapers were the space like a laboratory in which they did an experiment such as narrative writing. In short,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intended to reveal Enlightenment while finding a new writing system in the newspapers based on the writing system in *Hanmun* and seeking the unification of spoken and written writing. Moreover, this Narration, as the origin of the modern Narration, may play a messenger role to form the modern novels.

However, in the earlier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the experiment in the space of the media showed a tendency to being in succession to 'Existed Narration' through relocating it rather than to showing various 'Non-Existed Narration'. It is not infrequent cases that in the modern media, by means of Narration in *Hanmun*, 'Existed Narration' was reformed and then it was realized as an article. Nevertheless, later, this experiment contributed to establishing 'literature', so it seems to work as an origin to start with the new-style novel and the short story. This is the credit of the traditional Narration in *Hanmun* about its contribution to the Narration in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It is true that we got so used to find the origin of literary genre or style under the name of the meaning of modern and we have attempted to put in a great deal of effort to find it. As well, it is also true that we ignored the investigation into the traditional writing conducted by the intellectuals with the knowledge of *Hanmun*, who had communicated with the real world by means of various writing and had continuously expanded the network of meaning of various writing. In addition, it is true that according to a uni-directional perspective which focusing on the style, we have judged the traditional Narration with such bias. Therefore, we have tried to analyze literature in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in terms of the aspect of Western literature and novel and we have concentrated on to explain how many steps our literature in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had moved toward the way of Western literature. As a result, it is true that we have neglected our duties to account fo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Narration, which are able to be defined as a special feature within literature in this period. Possibly, this academic attitude may be a by-product transplanted from Western academic approach so-called branching subjects to the modern academic society of ours. Thus,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for us to reconfirm the various figures of Narration and those of the experiment, which the newspapers showed in itself, out of the narrow viewpoint. This provides us to re-recognize Narration in the period of modern Enlightenment. Finally, here, I would like to call it to mind Tae-Jun Lee's comment such as "If you want to see the art of an author, read the short story." I think that his comment implies that a Narration in *Hanmun*, through its short story, did not stray into the path such that the literary convention and the author's spirit always pursue the high artistic-value. Is there any connection between the ignorance of the tradition of Narration in *Hanmun* and the ignorance of the following subject such that the short story became a main stream in the history of modern novels? Because the authors in the modern novels, which had the knowledge of *Hanmun*, might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literary tradition of the tradition of Narration in *Hanmun* and its esthetic characteristics.